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문공보관 이준호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 보도자료

2025. 1. 22.(수)

제 목

### 2024년도 범죄수익 환수 역량 강화 - 전년 대비 334% 증가한 551억 원 환수 -

-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024년부터 범죄수익의 실효적 환수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약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국고귀속 하였습니다.
- 범죄수익 은닉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이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범죄수익환수부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그 산하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 및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와 함께 고액 추징금 미납 사건을 상시 점검하여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집중 추적하는 방안을 시행하면서 다각적 환수 방법을 입체적으로 동원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범죄수익환수부는 전년(127억 원) 대비 약 334% 증가한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였고, 최근 5년 간 대비 최고액을 국고귀속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검찰은 종국적 정의 실현 및 범죄예방, 환수의 경제적 효용 등을 고려하여 환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자금세탁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 I 범죄수익 환수 동향

## 1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 팽배

-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도박·성매매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그에 비례하여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만연

※ 2019년도 ‘대한민국 성인 및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중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2019년도	초등	중등	고등	20대	30대	40대	50대
긍정 답변	23%	42%	57%	53%	43%	40%	23%

※ 2,000억 대 유사수신 주범은 환수되기 전에는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범행을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범죄수익환수부가 본격적으로 환수에 착수하고 추적 결과를 제시하자 은닉 사실을 자백함 (사례 2 참조)

- 이러한 병폐는 대규모 범죄수익의 온전한 향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선량한 서민에게 막대한 상실감을 주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추가 피해를 유발

## 2 범죄수익 은닉의 지능화 및 환수의 현실적 어려움

- 전통적 방법인 명의신탁, 차명계좌 활용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취득, 해외 자산 은닉, 전문 세탁업자를 동원한 상품권 및 가상자산 환전, 차명 주거지 내지 김치통에 현금 또는 고가 차량 은닉 등, 지능적인 다양한 은닉 수법이 동원
- 그 결과 범죄수익 환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검찰 전체 환수액	1,033억	1,001억	1,103억	993억	923억
당청 환수액	310억	312억	273억	176억	127억

## ① 추진 배경

-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예방의 첫걸음인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 내 유일하게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은 2024. 1.경부터 실효적 환수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진행

## ② 실효적 환수 역량 강화

### 1. 범죄수익환수부를 컨트롤 타워로 한 원스톱 환수 체계 운영

- 범죄수익환수부가 자금세탁 수사, 범죄수익 추적, 보전, 환수, 민사 및 피해자 환부 등 일련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총괄하면서, 그 산하에 추적 업무를 전담할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하고 수사관 인원을 대폭 보강함과 동시에 인적·물적 지원 체계를 강화
- 또한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와 연계하여 고액 추징금 미납 사건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추적하는 방안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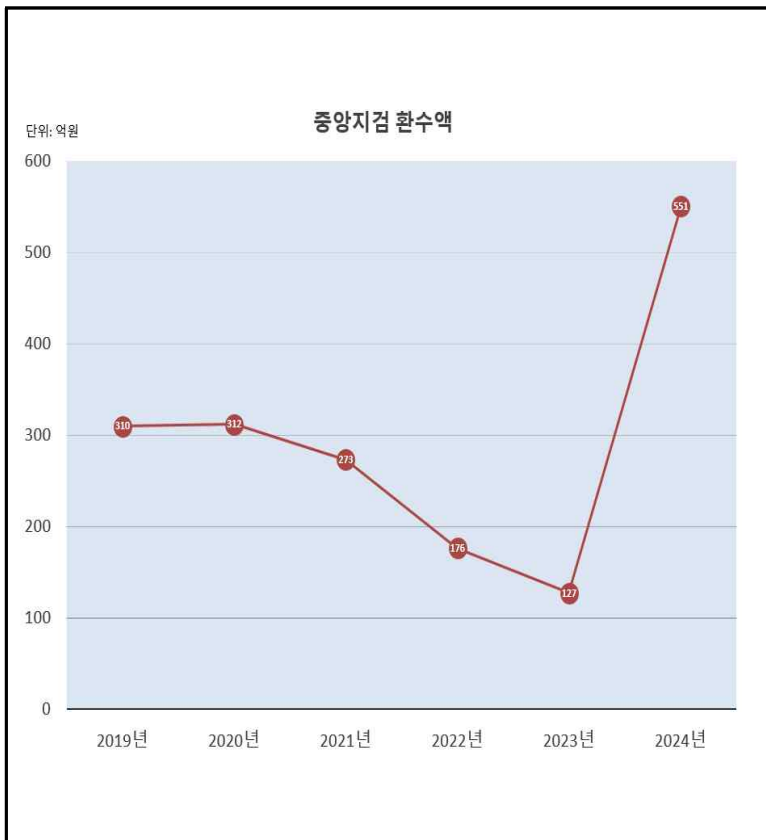
### 2. 다양한 환수 방법 활용 및 전문성 제고

- 특히 고도화되는 범죄수익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 포렌식, 은닉재산 압류,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및 민사조치 등 그 동안 환수에 활용되지 않던 다양한 환수 방법을 입체적으로 동원
- 나아가 검사 및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무 세미나와 환수 기법 스터디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

## 2024년도 범죄수익 환수 결과

### 1 환수 실적 대폭 증가

-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 및 집행2과와 함께 범죄 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 범죄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 결과, 2024년도에 약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
  - 이는 전년 대비 약 334% 증가(약 424억 원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 간 대비 최고액 환수
- 이를 통해 감소 추세에 있던 범죄수익 환수액이 대폭 반등
  - 서울중앙지검 환수액 증가분 424억 원이 반영되어, 1,0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던 검찰 전체 환수액이 2024년도의 경우 1,526억 원으로 급증



	검찰전체 환수액	중앙지검 환수액
2019년	1,033억	310억
2020년	1,001억	312억
2021년	1,103억	273억
2022년	993억	176억
2023년	923억	127억
2024년	1,526억	551억

## ② 환수 주요 사례

### ▣ [사례 1] 청담동 주식부자 A의 범죄수익 122.6억 원 전액 환수

-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던 청담동 주식부자 A를 상대로,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및 민사조치 등 다각적 방법을 집중적으로 진행
- 이를 통해 현금·수표, 가상자산 등을 확보하여 범죄수익 전액을 국고귀속

※ '24. 9. 26.자 「청담동 주식부자 A의 범죄수익 122.6억 원 환수」 보도자료 참고

### ▣ [사례 2] 2,000억 대 유사수신 주범 B의 범죄수익 130억 원 전액 환수

- 4,400명의 노인·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약 2,000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사범 B를 상대로,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및 관련자 조사 등 다각적 방법 활용
- 이를 통해 위장이혼 한 처 또는 차명 법인 명의로 은닉 중이던 고가 아파트 2채, 상가 4개실 및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트 회원권, 고가 외제차 2대, 상장주식, 가상자산, 차명예금 및 외화, 다수의 미술품 및 고가 시계 등을 확보하여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

※ '24. 11. 26.자 「2,000억 대 유사수신 주범의 범죄수익 130억 원 환수」 보도자료 참고

### ▣ [사례 3] C 펀드 사기 사건 관련 범죄수익 157억 원 환수

- C 펀드대금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 약 800억 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회계실사 자료 분석, 피해자 측과의 긴밀한 협의 및 관련 민사조치의 적극적인 수행
- 그 결과 이들이 차명 법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주식 및 예탁금, 투자채권 등을 신속히 처분하여 범죄수익 157억 원을 환수

#### ■ [사례 4] 19년 만에 배임수재 사범 D의 범죄수익 9억 원 전액 환수

- 아파트 재건축 컨설팅업체 운영자로서 건설사로부터 시공사 청탁 명목으로 9억 원을 수수하였음에도, 19년 동안 범죄수익 9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배임수재 사범을 상대로, 재산분석, 계좌추적 및 주거지 수색 등을 진행
- 그 결과 주거지 내 보관 중이던 현금 25억 원 등을 확보하고 예금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19년 만에 범죄수익 전액을 국고귀속

#### ■ [사례 5] 성매매알선 사범 E의 범죄수익 11억 원 전액 환수

- 건물주로서 성매매업주에게 3년간 건물을 임대하고 범죄수익 약 11억 원을 취득한 성매매알선 사범을 상대로, 각종 재산조회, 계좌추적, 주거지 수색 및 민사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
- 성매매알선 사범이 처 명의로 고가 아파트, 상가 2채, 별장 등을 은닉한 사실을 파악하고, 위 부동산 일부의 처분을 통해 범죄수익 전액을 국고귀속

#### ■ [사례 6] 경복궁 낙서범 F의 은닉 재산 확보 및 자금 세탁사범 적발

- 경복궁을 훼손하여 복구비 1.3억 원이 들도록 하였음에도 보유 중인 범죄수익이 없다며 피해 회복을 거부한 경복궁 낙서범 F를 상대로, 모바일 정밀 분석, 계좌 및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경복궁 낙서범이 은닉한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 약 8,500만 원을 확보
-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자금 세탁사범 3명을 적발하여 함께 기소

※ '24. 11. 6.자 「경복궁 낙서범의 자금세탁 수사결과 및 범죄수익 확보」 보도자료 참고

## ① 환수의 형사정책적 효과 및 경제적 효용

- 범죄수의 환수는 형사정책적 효과 및 경제적 효용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향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업무임
- 즉, 중국적인 정의 실현, 범죄 동기의 차단 및 범죄 예방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소요 비용이 크지 않은 반면 대규모 범죄수의 환수는 곧바로 국고수입 증대로 귀결되는 등 비용 대비 효과가 큼

## ② 전담부서 설치 등 지속적 역량 강화

- 그러나 범죄수의 은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범죄수의 추적·보전·환수·환부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회성 단속이나 임시 조직으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전문성과 경험을 구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환수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큼
  -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금년부터 ‘조직범죄수사과’를 ‘조직범죄수사 및 범죄수익환수과’로 개편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수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 해외 국가의 경우 검찰청별로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많고, 독일, 미국 등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시급
-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임 ☑